

四象體質別 利小便 藥物의 效能에 관한 研究

심규현* · 신미란* · 김정렬* · 전종원** · 김달래*

Abstract

The study of the effect of the diuretic herbal medicine in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im Gyu-Heoun* · Shin Mee-Ran* · Kim Jung-Yul* · Jeon Jong-Won** · Kim Dal-Ra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

**Dept. of Multimedia Design, Sangji Youngseo Univ.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diuretics in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ose are not categorized to the diuretic in the established herbal medicine by the way of measuring the change of body edema and the quantity of body moisture through the inbody test, along with the urine volume taken for 24 hours

1. We medicated the diuretic suggested by the DongyiSuseBowon 東醫壽世保元 into the tested group and measured the change of the urine volume, the quantity of body moisture and the degree of body edema.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s below.

1) Soeumin

The change in the urine volume and body moisture showed no responsibility, but the degree of body edema decreased with the responsibility.

2) Soyangin

All of the degree of body edema and the urine volume, and body moisture showed decrease.

3) Taeumin

The urine volume and body moisture increased but showed no responsibility. Also the degree of body edema decreased within the normal limit which can not be accepted.

4) The medicine of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an not be simply thought to be the diuretic, but it has the function that excretes the moisture which functions negatively in the body and causes edema, as well as the function of the adjustment of metabolism that preserves the normal amount of moisture. This is the good example which is the concept of the adjustment therapy suggested by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 Through the results above, we can find that the diuretic suggested by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functions in the way that is differently explained by the herbal medicine.

Key words : The Diuretic medicin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urine volume, The quantity of body moisture, the degree of body edema

*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사상체질의학교실 ** 상지영서대 멀티미디어 디자인과
교신저자 : 심규현 주소)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283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전화) (033)741-9370

I. 서 론

사상의학은 동무 이제마 선생이 조선말에 창시하여 약 100여년간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으로 자리잡아 왔다. 동무 이제마 선생은 인체 내부 장리의 상대적 편차를 근거로 인간의 체질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그리고 소음인으로 구분¹⁾하였다. 동의수세보원에서는 체형기상, 용모사기, 병증약리 등을 근거로 하여 사상인의 체질을 구분하였으며 치료시의 용약에 있어서도 역시 각 체질간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하여 약물을 구분하였다.

본 실험은 이제마 선생의 체질별 약물 구분에 준하여 사상인의 이소변약을 실험군에 투약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태양인은 실험 대상을 찾기 어려울 만큼 그 숫자가 적은 관계로 이번 실험에서는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의 세 체질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무 이제마 선생은 동의수세보원의 소음인 병증론에서 소양인과 소음인의 이소변약에 대해 “若 欲利小便則 乾薑·良薑·陳皮·青皮·香附子·益智仁 能利少陰人小便 荊芥·防風·羌活·獨活·茯苓·澤瀉 能利少陽人小便²⁾”라고 말했으며, 이 외에 태음인의 경우는 동의수세보원에 제시된 처방 중 복창부종병에 사용하는 건울제조탕이나 갈근부평탕을 살펴보면 건울 제조 의이인 나복자 맥문동 원지 등이 이소변에 작용함을 알 수 있다.³⁾

특히 소음인에 있어서는 “然 痞滿·黃疸·浮腫 同出一證而 有輕⁴⁾”이라하여 부종, 황달, 비만의 병증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소변약은 기존 한의학의 본초학에 비추어 볼 때 이소변약으로 분류되지 않은 약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마 선생은 이 약물들을 이소변약으로 분류하였고 소음인의 향사양위탕, 궁귀충소이중탕, 보명음, 십이미관중탕, 소양인의 목통대안탕, 목통무우탕, 태음인의 갈근부평탕, 건울제조탕과 같이 실제 처방중에 활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⁵⁾

이에 저자는 약물군에 대한 언급이 부종, 황달 등의 병증론 부분에서 언급된 것에 기인하여 체성분검사를 통한 부종도와 체수분량의 변화정도를 측정하며 동시에 24시간 소변량을 측정하여 기존의 본초학에서 이소변약물로 분류되지 않는 사상의학에서의 이소변 약물군의 효능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실험 대상

본 실험은 태양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체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재학중인 남학생을 대상으로 소양인 7명, 소음인 8명, 태음인 8명을 선발하였다.

1) 연 령 : 24세에서 40세의 남성

2) 체질감별 :

① 1 차 : QSCC II를 실시.

② 2 차 : 2명의 사상체질의학 전문의의 감별과정을 거침.

③ 사상처방의 복약의 경험이 있는 자는 그 반응에 따라 우선적으로 체질을 감별하였다.

3) 실험군 선발의 조건

신장계, 방광계 등의 내과적 질환의 기왕력, 또는 현병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외의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제하였다.

2. 실험 약물

실험약물은 동의수세보원 소음인 병증론에 기록된 소양인과 소음인 이소변약을 선택하였으며 태음인의 경우는 제시된 약물이 없기 때문에 동의수세보원의 태음인 처방을 근거로

하여 사상체질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구하여 6개 약물을 지정하여 선택하였다.

- 1) 소음인 : 진피 청피 건강 양강 향부자 익지인
- 2) 소양인 : 강활 독활 형개 방풍 복령 택사
- 3) 태음인 : 건률 제조 의이인 나복자 맥문동 원지

위의 각각의 체질별로 약물은 8.0g씩 한첩으로 하여 투약했다.

약물은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약제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량대로 제조, 탕전하여 사용했다.

3. 실험 기구

- 1) 체성분 분석기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진단실의 Inbody 3.0을 사용
- 2) QSCC II

4. 실험 방법

2차에 걸쳐 체질을 감별받은 23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3월 26일, 27일, 28일 3일간은 투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소변량의 측정과 체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9일 30일 31일의 3일간은 투약을 한 상태에서 같은 측정과 분석을 하였다.

1) 실험시 제한 조건

- ① 실험 시작 하루 전부터 실험이 끝나는 날까지 음주, 커피, 녹차, 울무차 등 체수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배제시켰다.
- ② 음식물의 경우 종류에 따라서 부종도와 체수분량에 줄 수 있으므로 6일간 먹은 음식물을 모두 기록하도록 했으며 대변

과 소변의 배설량도 측정했다.

- ③ 대소변으로 나가는 것 이외에 있을 수 있는 수분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실험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심한 발한을 유발할 수 있는 운동을 삼가도록 했다.
- ④ 실험 대상은 여러 가지 내과질환의 현병력 또는 과거력이 없는 자로 선발하여 이상상태의 수분대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였다.
- ⑤ 소변량의 측정을 공통화 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지급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2) 실험의 진행

- ① 실험실시 1일전 실험대상자 전원을 체성분 분석기로 체수분량과 부종도를 측정했으며 음식조절을 실시했다.
- ② 실험 1, 2, 3일의 전반 3일간 정확한 I.O Check를 실시하였다.
- ③ 외부적으로 소변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한 3일 중 마지막날에 다시 체수분량과 부종도를 측정하였으며 각자의 체질에 맞는 실험약물을 탕전하여 9팩씩 나누어 주었다.
- ④ 실험 4, 5, 6일의 후반 3일간 실험약물을 투약하면서 I.O Check를 병행하였다.
- ⑤ 실험 시작 후 6일째에 다시 체수분량과 부종도를 측정하였다.

5. 통계 처리⁶⁾

본 실험의 통계처리는 상지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의뢰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t-검정(t-test)을 사용하였다.

Ⅲ. 결 과

본 실험은 실험 기간동안의 소변량과 체성분분석기를 통한 수치화된 체수분량과 부중도를 측정하여 이소변 약물의 투약전과 투약후의 변화정도를 통계적인 처리방법을 통하여 유의성의 유무를 살펴보고 사상본초학의 개념의 규명과 임상에의 응용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실험결과의 분석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였다.

1. 24시간 소변량의 변화정도

실험에 사용된 약물은 기존 증치의학의 본초적 관점에서 볼 때 이소변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약물이 대부분이며 오히려 행기 또는 통규 등의 작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다시 말해서 사상의학의 이소변약의 분류는 기존 본초학적 관점의 이소변약의 분류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 소변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사상의학의 이론위에서의 이소변약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부중도의 측정

동의수세보원에서는 이소변약의 분류를 부중에 대한 병증설명에서 언급하고 있다.

소변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중정도가 약물 복용 후에 감소한다면 넓은 의미의 이수약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임상활용시 사상처방의 운용에 있어서 약재의 가감이나 단방 활용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체수분량의 측정

건강하고 3일간의 외부영향을 배제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험군에 대하여 이소변 약물을 투약했을 때 변화되는 체수분량의 측정

은 임상적으로 부중도의 변화에 대한 바탕이 된다. 즉 부중도가 감소했다하더라도 체수분량이 유의성 있게 변화하지 않았다면 사상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체의 정상대사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부중도가 감소했다고 가정할 때 체수분량도 같이 감소한다면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적극적이고 조절적인 치료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단순한 이뇨의 개념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 소음인

(1) 소변량의 변화

소변량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소음인의 경우 7명의 표본 가운데 3명은 소변량이 증가했으나 나머지 4명은 오히려 소변량이 감소했다. 그 결과 평균은 1118에서 1030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p(T<=t)$ 값은 0.29로 나타났다.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Table I)

Table I. The change of Urine Volume in Soeumin

	Before the Adm. of the Herb	After the Adm. of the Herb
SE1	956.66	736.66
SE2	1450	1630
SE3	1073.33	1106.66
SE4	1033.33	1066.66
SE5	1440	1003.33
SE6	1090	996.66
SE7	783.33	673.33
	Before the Adm. of the Herb	After the Adm. of the Herb
Average	1118.09	1030.47
Dispersion	60315.16	97050.64
Pearson 상관 계수		0.77
t 통계량		1.16
P(T<=t) 단측 검정		0.15
t 기각치 단측 검정		1.94
P(T<=t) 양측 검정		0.29
t 기각치 양측 검정		2.45

(2) 체수분량의 변화

소음인의 체수분량의 변화를 관찰했을 때 평균은 38.04에서 38.39로 증가했으나 $p(T<=t)$ 값은 0.19로서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Table II).

Table II. The change of Body moisture in Soeumin

	Before the Exp.	Before the Adm. of the Herb	After the Adm. of the Herb
SE1	36.7	36.2	36.4
SE2	39	39.3	39.5
SE3	42.9	43.3	43.9
SE4	36.6	35.3	36.5
SE5	38.7	38.3	38.5
SE6	36.9	37	37.1
SE7	35.5	36	36.8

	Before the Adm. of the Herb	After the Adm. of the Herb
Average	38.04	38.39
Dispersion	6.10	7.22
Pearson 상관 계수	0.97	
t 통계량	-1.47	
$P(T<=t)$ 단측 검정	0.10	
t 기각치 단측 검정	1.94	
$P(T<=t)$ 양측 검정	0.19	
t 기각치 양측 검정	2.45	

(3) 부종도의 변화

소음인의 부종도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p(T<=t)$ 값은 0.04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했다 (Table III).

Table III. The change of Body Edema in Soeumin

	Before the Exp.	Before the Adm. of the Herb	After the Adm. of the Herb
SE1	0.34	0.34	0.34
SE2	0.32	0.32	0.32
SE3	0.33	0.33	0.33
SE4	0.33	0.34	0.33
SE5	0.32	0.32	0.32
SE6	0.35	0.33	0.34
SE7	0.35	0.35	0.34

	Before the Adm. of the Herb	After the Adm. of the Herb
Average	0.33	0.323
Dispersion	0.0002	0.0001
Pearson 상관 계수	0.95	
t 통계량	2.67	
$P(T<=t)$ 단측 검정	0.02	
t 기각치 단측검정	1.44	
$P(T<=t)$ 양측 검정	0.04	
t 기각치 양측검정	1.94	

2) 소양인

(1) 소변량의 변화

소양인 집단에서 소변량의 변화를 관찰했을 때 $p(T<=t)$ 값은 0.03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했다 (Table IV).

Table IV. The change of Urine Volume in Soyangin

	Before the Adm. of the Herb	After the Adm. of the Herb
SY1	993.33	1146.66
SY2	1333.33	1950
SY3	940	1103.33
SY4	723.33	1130
SY5	656.66	820
SY6	1340	1343.33
SY7	1200	1543.33
SY8	973.33	850

	Before the Adm. of the Herb	After the Adm. of the Herb
Average	1019.99	1235.83
Dispersion	66042.02	139234
Pearson 상관 계수	0.79	
t 통계량	-2.61	
$P(T<=t)$ 단측 검정	0.02	
t 기각치 단측 검정	1.90	
$P(T<=t)$ 양측 검정	0.03	
t 기각치 양측 검정	2.36	

(2) 체수분량의 변화

소양인의 체수분량의 변화를 관찰한 그룹에서도 $p(T<=t)$ 값은 0.02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Table V).

Table V. The change of Body Moisture in Soyangin

	Before the Exp.	Before the Adm. of the Herb	After the Adm. of the Herb
SY1	32.7	33.4	33.7
SY2	39.8	39.9	39
SY3	40.8	40.8	41
SY4	38.4	39.2	38.5
SY5	26.3	26.8	26.7
SY6	37.2	37.9	37.4
SY7	40.8	39.8	40.2
SY8	37.6	37.7	37.7

	Before the Adm. of the Herb	After the Adm. of the Herb
Average	0.32	0.32
Dispersion	2.59821E-05	2.15536E-05
Pearson 상관 계수	0.77	
t 통계량	3.004	
P(T<=t) 단측 검정	0.01	
t 기각치 단측검정	1.90	
P(T<=t) 양측 검정	0.02	
t 기각치 양측검정	2.36	

(3) 부종도의 변화

소양인의 부종도의 변화를 관찰한 그룹에서도 평균은 0.32에서 0.32로 감소했으며 p(T<=t)값 역시 0.02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VI).

Table VI. The change of Body Edema in Soyangin

	Before the Exp.	Before the Adm. of the Herb	After the Adm. of the Herb
SY1	0.322	0.327	0.321
SY2	0.332	0.333	0.324
SY3	0.318	0.319	0.318
SY4	0.32	0.317	0.319
SY5	0.321	0.313	0.312
SY6	0.331	0.33	0.328
SY7	0.322	0.319	0.319
SY8	0.323	0.319	0.32

	Before the Adm. of the Herb	After the Adm. of the Herb
Average	0.32	0.32
Dispersion	2.59821E-05	2.15536E-05
Pearson 상관 계수	0.77	
t 통계량	3.004	
P(T<=t) 단측 검정	0.01	
t 기각치 단측검정	1.89	
P(T<=t) 양측 검정	0.02	
t 기각치 양측검정	2.36	

3) 태음인

(1) 소변량의 변화

태음인의 소변량의 변화를 관찰한 그룹에서는 평균은 1045.83ml에서 1243.75ml로 매우 증가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Table VII).

Table VII. The change of Urine Volume in Taeumin

	Before the Adm. of the Herb	After the Adm. of the Herb
TE1	1800	1233.33
TE2	816.66	1333.33
TE3	733.33	700
TE4	716.66	850
TE5	533.33	800
TE6	1266.66	1300
TE7	1833.33	2733.33
TE8	666.66	1000

	Before the Adm. of the Herb	After the Adm. of the Herb
Average	1045.83	1243.75
Dispersion	271807	419596.7
Pearson 상관 계수	0.75	
t 통계량	-1.30	
P(T<=t) 단측 검정	0.12	
t 기각치 단측 검정	1.89	
P(T<=t) 양측 검정	0.23	
t 기각치 양측 검정	2.36	

(2) 체수분량의 변화

태음인의 체수분량의 변화를 관찰한 그룹에서는 평균은 42.96에서 43.2로 경미하게 증

가하였으나 $p(T<=t)$ 값은 0.32으로 유의성은 없었다(Table VIII).

Table VIII. The change of Body Moisture in Taeemin

	Before the Exp.	Before the Adm. of the Herb	After the Adm. of the Herb
TE1	46.4	46.2	46.5
TE2	39.1	39.8	40.1
TE3	43.2	43.7	43.9
TE4	37.5	37.3	36.8
TE5	41	41.2	42
TE6	40.7	40.3	40.3
TE7	46.8	46.2	46.7
TE8	49	47.7	49.3

	Before the Adm. of the Herb	Before the Adm. of the Herb
Average	42.96	43.2
Dispersion	16.68	17.32
Pearson 상관 계수	0.99	
t 통계량	-1.06	
$P(T<=t)$ 단측 검정	0.16	
t 기각치 단측검정	1.89	
$P(T<=t)$ 양측 검정	0.32	
t 기각치 양측검정	2.36	

(3) 부종도의 변화

태음인의 부종도의 변화를 관찰한 그룹에서는 평균이 0.33에서 0.33로 감소했으나 $p(T<=t)$ 값은 0.46으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IX).

Table IX. The change of Body Edema in Taeemin

	Before the Exp.	Before the Adm. of the Herb	After the Adm. of the Herb
TE1	0.329	0.33	0.325
TE2	0.318	0.324	0.316
TE3	0.325	0.321	0.32
TE4	0.329	0.325	0.324
TE5	0.336	0.331	0.329
TE6	0.33	0.332	0.331
TE7	0.338	0.353	0.342
TE8	0.308	0.31	0.315

	Before the Adm. of the Herb	After the Adm. of the Herb
Average	0.33	0.33
Dispersion	9.48393E-05	7.82143E-05
Pearson 상관 계수	0.86	
t 통계량	0.79	
$P(T<=t)$ 단측 검정	0.23	
t 기각치 단측 검정	1.89	
$P(T<=t)$ 양측 검정	0.46	
t 기각치 양측 검정	2.36	

IV. 고 찰

동의수세보원에서는 사상체질별로 이소변약을 명시하면서 각 체질별로 다른 특성이 있음을 말하는데, 태음인의 이소변약에 대해서는 소음인과 소양인처럼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마 선생은 동의수세보원 소음인 병증론에서 위의 이소변약을 사용하는 경우를 부종, 황달, 비만의 경우에 사용한다⁴⁾고 제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태음인의 이소변 약물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태양인을 제외한 세 가지 체질의 이소변 약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소음인 약물에는 진피 청피 건강 양강 향부자 익지인, 소양인 약물에는 강활 독활 형개 방풍 복령 택사, 태음인 약물에는 건률 제조 의이인 나복자 맥문동 원지를 배속했다⁷⁾.

위의 약물을 살펴보면 소양인의 복령, 택사나 태음인의 의이인 등의 몇가지 약물을 제외한 나머지 약물은 기존의 본초학적 내용에 근거로는 주로 행기, 발표, 해표 등의 약물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마 선생은 위의 약물들을 사상의학적인 생리, 병리의 이론 하에서 이소변 약물로 규정했는데 기존 본초학적 바탕위에서는 이소변 약이 아닌 것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약물의 본초학적 의미와 사상의학적 효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소음인 약물 중 건강은 사상의학에서는 대

부분의 리증에 쓰이면서 표증에는 전혀 쓰이지 않고, 병의 근원인 습탁 비만을 해소하고 소변이 원활해지게 하며 리한증으로 인해 체내의 수습이 정체되어 나타나는 비만·황달·부종을 다스린다⁷⁾. 본초학적으로는 溫中逐寒, 回陽通脈, 治心腹冷痛, 吐瀉, 肢冷脈微, 寒飲喘咳, 風寒濕痺, 陽虛吐衄, 下血하는 효능주치가 있다.

양강은 사상의학에서는 관중환에 들어가는 약재로 신정방 적백하오관중탕에 1돈 쓰이고, 胃中冷逆, 霍亂吐瀉를 다스린다⁷⁾. 본초학적으로는 溫胃, 祛風, 散寒, 行氣, 止痛, 治脾胃中寒, 脘腹冷痛, 嘔吐泄瀉, 噎膈反胃, 食滯, 瘡癩, 冷癱하는 효능주치가 있다⁸⁾.

진피는 사상의학에서는 천궁계지탕, 궁귀향소산, 보중익기탕, 팔물군자탕, 향부자팔물탕, 계지반하생강탕, 향사양위탕, 관중탕류, 이중탕류, 인삼진피탕, 곽향정기산에 쓰여 소음인 약재중 가장 많이 쓰인 藥材중의 하나이다⁷⁾. 본초학적으로는 理氣, 調中, 燥濕, 化痰, 治胸腹脹滿, 不思飲食, 嘔吐呃逆, 咳嗽痰多하는 효능주치가 있다⁸⁾.

청피는 사상의학에서는 곽향정기산에 5푼 쓰여 리증에만 쓰인다⁷⁾. 본초학적으로는 疎肝破氣, 散結消痰, 治胸脇胃脘疼痛, 疝氣, 食積, 浮腫, 乳核, 久瘡癰塊하는 효능주치가 있다⁸⁾.

향부자는 사상의학에서는 궁귀향소산, 향부자팔물탕에 2돈, 향사양위탕, 관중탕류에 1돈 씩 쓰이는 등 표리방에 모두 쓰인다⁷⁾. 본초학적으로는 理氣解鬱, 止痛調經, 治肝胃不和, 氣鬱不舒, 胸腹脇肋脹痛, 痰飲痞滿, 月經不調, 崩漏帶下하는 효능주치가 있다⁸⁾.

익지인은 사상의학에서는 신정방에서 복통을 다스리는 관중환에 1돈, 곽향정기산에 5푼 쓰인다⁷⁾. 본초학적으로는 溫脾, 暖腎, 固氣, 澁精, 治冷氣腹痛, 中寒吐瀉, 多唾, 遺精, 小便餘瀝, 夜多小便하는 효능주치가 있다⁸⁾.

소양인 약물 중 형개는 사상의학에서는 외

한리열의 소양인 표병을 치료한다⁷⁾. 본초학적으로는 發表, 散風, 透疹, 理血, 治感冒, 頭痛, 咽痛, 癩疹, 瘡瘍初起炒炭治便血, 崩漏, 產後血暈하는 효능주치가 있다⁸⁾.

방풍은 사상의학에서는 외한리열의 소양인 표병을 치료한다⁷⁾. 본초학적으로는 解表祛風, 濕勝, 止痛, 治外感風寒, 頭痛, 目眩, 項強, 風寒濕痺, 骨節酸痛, 四肢攣急, 破傷風하는 효능주치가 있다⁸⁾.

강활은 사상의학에서는 방광진음을 보하는 약재이다⁷⁾. 본초학적으로는 散表寒, 祛風濕, 利關節, 治感冒風寒, 頭痛無汗, 風寒濕痺, 項強筋急, 骨節酸痛, 風水浮腫, 癰疽瘡毒하는 효능주치가 있다⁸⁾.

독활은 사상의학에서는 방광진음을 보하는 약재이다⁷⁾. 본초학적으로는 祛風除濕, 解表止痛, 治風寒濕痺, 關節屈伸不利, 惡寒發熱, 頭痛身痛, 肢體沈重하는 효능주치가 있다⁸⁾.

복령은 사상의학에서는 리수강음과 보음의 효능이 있다⁷⁾. 본초학적으로는 利水滲濕, 健脾寧神, 治水腫尿少, 痰飲眩悸, 脾虛食少, 便溏泄瀉, 心神不安, 驚悸失眠하는 효능주치가 있다⁸⁾.

택사는 사상의학에서는 리수강음과 보음의 효능이 있다⁷⁾. 본초학적으로는 利水滲濕, 泄熱, 治小便不利, 水腫脹滿, 泄瀉尿少, 熱淋瀝痛, 高脂血症하는 효능주치가 있다⁸⁾.

태음인 약물 중 윈지는 사상의학에서는 이 룡을 다스린다⁷⁾. 본초학적으로는 寧心安神, 祛痰利竅, 消散癰腫, 治心神不安, 失眠多夢, 健忘驚悸, 神志恍惚, 咳痰不夾, 瘡瘍腫毒, 乳房腫痛하는 효능주치가 있다⁸⁾.

석창포는 사상의학에서는 신이 혼란되어 명료하지 못한 상태를 바르게 해준다⁷⁾. 본초학적으로는 化濕開胃, 開竅豁痰, 醒神益智, 治脘痞不飢, 噤口不利, 神昏癲癇, 健忘耳聾하는 효능주치가 있다⁸⁾.

나복자는 사상의학에서는 간힌 습을 배출시

키는 효능이 있다⁷⁾. 본초학적으로는 下氣定喘, 消食化痰, 治咳嗽痰喘, 食積氣滯, 胸悶腹脹, 下痢後重하는 효능이 있다⁸⁾.

의이인은 사상의학에서는 폐의 호산지력을 높여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을 도와준다⁷⁾. 본초학적으로는 健脾滲濕, 除痺止瀉, 清熱排膿, 治水腫脚氣, 小便不利, 濕痺拘攣, 脾虛泄瀉, 肺癰, 腸癰하는 효능 있다⁸⁾.

건륜은 사상의학에서는 몸의 통로가 심하게 막힌 것을 뚫어주고 열어주는 효능이 있다⁷⁾.

제조는 사상의학에서는 기액을 강하게 호산시켜 기혈이 부족한 허로 열증과 부종, 파상풍 등 급증을 다스리는 약재이다⁷⁾.

이번 실험에서는 각각의 체질별로 서로 다른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소변량의 변화를 관찰했는데 소음인의 경우 7명의 표본 가운데 3명은 소변량이 증가했으나 나머지 4명은 오히려 소변량이 감소했다. 그 결과 $p(T<=t)$ 값은 0.29로 나타났으며,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소음인의 완실무병이 음식을 잘 소화하도록 하는데 작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소변량의 변화에 작용하지 않았나 사려되었다(Table I).

소음인의 체수분량의 변화를 관찰했을 때 $p(T<=t)$ 값은 0.20로서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원래 건강한 소음인은 기육이 부연(浮軟)한 상태로 수분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분량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된다(Table II).

소음인의 부종도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p(T<=t)$ 값은 0.04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수곡대사가 활발해지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Table III).

소양인 집단에서 소변량의 변화를 관찰했을 때 $p(T<=t)$ 값은 0.03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했다. 소양인의 이소변약은 전통적으로 이뇨 효과가 있는 약물들로 구성되었고, 수많은 임상에서 입증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

이지만 이번 실험에서도 또 한번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IV).

소양인의 소변량의 변화에서처럼 소양인의 체수분량의 변화를 관찰한 그룹에서도 $p(T<=t)$ 값은 0.02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이 또한 소양인의 이수약물이 수곡대사에 깊숙이 관여하여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켰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Table V).

소양인의 부종도의 변화를 관찰한 그룹에서도 평균은 0.32에서 0.32로 감소했으며 $p(T<=t)$ 값 역시 0.02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VI).

태음인의 소변량의 변화를 관찰한 그룹에서는 평균은 1045.829ml에서 1243.749ml로 매우 증가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이런 사실은 태음인의 완실무병이 한액(汗液)이 통창(通暢)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건강하고 신진대사가 활발한 사람은 수분의 섭취와 배설이 뛰어나지만 기능이 약한 태음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Table VII).

태음인의 체수분량의 변화를 관찰한 그룹에서는 평균은 42.9625에서 43.2로 경미하게 증가하였으나 $p(T<=t)$ 값은 0.32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이런 사실은 태음인의 기액대사가 활발해지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Table VIII).

태음인의 부종도의 변화를 관찰한 그룹에서는 평균이 0.33에서 0.33로 감소했으나 $p(T<=t)$ 값은 0.46으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표본 8명중 5인은 0.01 이상의 상당한 감소추세를 보였다(Table IX). 이상의 얻어진 결과에 근거하여 볼 때 동의수세보원에서 제시하는 이소변약은 기존의 본초학의 이소변약과는 구성상 다른 점이 많으나 어느정도 이뇨제로서 작용하고 있는 점이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세 체질에서 모두 부종도의 감소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체수분량의 변화와 부종도의 감소가 정비례 하지 않는 것이다. 소음인과 태음인에서의 약물은 특히 기존 본초학에서 이소변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 많은데 이 두 체질의 경우 체수분량은 증가하나 부종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저자가 앞에서 가정한 것처럼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사상의학적 개념의 약물을 단순히 이소변약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체내에서 좋지 않게 작용하여 부종을 발생시키는 수분을 배설시킴과 동시에 체내의 정상수분을 오히려 보존시키는 대사조절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상의학에서 제시하는 조절치료적인 개념을 엿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실험에서는 표본의 숫자가 적어 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 많은 수의 실험군을 확보하여 좀 더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어낸다면 사상본초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상에도 널리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1. 동의수세보원에서 제시하는 이소변약물을 실험군에 투약하여 소변량과 체수분량, 그리고 부종도의 변화를 측정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소음인의 소변량과 체수분량의 변화는 유의성 없이 나타났으나 부종도는 유의성있게 감소했다.

2) 소양인의 소변량, 체수분량, 부종도가 모두 유의성 있게 감소했다.

3) 태음인의 소변량과 체수분량은 증가했으나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종도 역시

유의성을 인정할 수 없는 범위에서 감소했다.

4) 사상의학적 개념의 약물을 단순히 이소변약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체내에서 좋지 않게 작용하여 부종을 발생시키는 수분을 배설시킴과 동시에 체내의 정상수분을 오히려 보존시키는 대사조절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상의학에서 제시하는 조절치료적인 개념을 엿 볼 수 있는 부분이다.

2. 이상의 결과에서 사상의학에서 제시하는 이소변 약물은 기존의 본초학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다른 기전으로 인체에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본 실험의 결과를 임상에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실험군을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사상의학, 집문당, 1997, p184
2. 조황성 : 사상의학의 원리와 방제, 집문당, 2003
3. 김형태 : 신편 동의수세보원, 정담, 1999, p31 p76 pp82-83
4. 유주열 : 동의사상의학강좌, 대성문화사, 1999
5. 원지상 저 한동윤, 김정렬의 편역 : 동의사상신편, 정담, 2002, p43
6. 박양규 : 엑셀을 활용한 통계분석, 21세기사, 1999, pp86-189
7. 손용선 : 사상체질별 약재 분류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0
8.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교수 공편저 : 본초학, 영림사, 1999